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보도시점 2026. 6. 18.(목) 14:00 (2026. 6. 19.(금) 조간) 배포 2026. 6. 18.(목) 9:00

국가전략기술로 만드는 “초격차 대한민국” 글로벌 기술우위 확보, ‘원팀’으로 이끈다.

-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과기정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 개최
  * 민·관 협업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협력체계
- **NEXT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과 정책을 결합**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확보**하기 위한 **범국가적 협력 방안 공동 추진**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및 **기획예산처**(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이하 ‘기획처’)는 **’26년 6월 18일(목)**,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가전략기술 주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대표**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이하 ‘추진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New, Emerging, and eXponential Technology : 기하급수적 성장으로 신산업을 이끌 차세대·신흥 기술

이번 추진대회는 “NEXT One Korea - One Vision, One Team, One Future”라는 부제로, **2030년 세계 최고기술 확보, 2040년 세계 최초기술 선점**을 목표로 하는 NEXT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대전환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최초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핵심 사업**과 **정책을 결합**하여, **산업주도권 확보, 신시장·미래혁신 기술 선점** 등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개별 부처나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대전환**을 계기로 기술패권 경쟁이 특정 산업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주권 확보 여부**가 국가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집중지원**을 위해 **'21년 국가필수전략기술 지정**을 시작으로,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23.9 시행, 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제정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 정책**을 집중해왔고, 올해는 8.6조 원을 국가전략기술 R&D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기정통부, 재경부, 산업부)을 강화**하여 전략기술 육성 또는 보호를 위한 **4개 법령**(**「국가전략기술육성법」**(국가전략기술), **「조세특례제한법」**(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국가첨단전략기술),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의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공통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정합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4개 법령에 모두 포함되는 기술(**중점 지원영역**)에 대해서는 정책목적, 기술성숙도 등에 따라 R&D 투자, 조세특례, 산업 육성 등 **국가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글로벌 환경 변화를 반영, **산·학·연 및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가전략기술 3대 핵심미션**(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을 **설정**하여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고 **소재·에너지 분야** 및 지능형 전력망 등 **유망기술**과 경제안보적으로 필요한 국방 반도체 등 **기술**을 **보강**한 **10대 분야 55개 기술**의 **NEXT 국가전략기술**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진대회에서는 NEXT 국가전략기술 체계에 따라 도출된 분야별 임무 중 '27년부터 추진 예정인 과제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NEXT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NEXT ‘27년 신규 임무]

NEXT 프로젝트 내 핵심사업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26년말)되며, **R&D 예산 배분·조정 시 우선 검토**, **기업매칭비율 완화** 등이 적용된다. 또한 올해 하반기까지 핵심사업을 포함하여 분야별 종합 로드맵을 재정비하여 관계부처, 민간과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NEXT 얼라이언스 구축 방향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협력하는 “**NEXT 얼라이언스**”를 구축·운영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육성 방향 및 대응전략** 마련(분야별 협의체), **성과창출 가속화**(프로젝트 지원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먼저, **분야별 협의체**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별로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필요사항** 등을 공유·논의한다. 분야별로 관련 산·학·연 및 **전략기술 보유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개발부터 생태계 혁신을 주도한다.

또한, 프로젝트 지원팀은 NEXT 프로젝트의 성과창출을 위해 **금융, 투자,** VC의 참여 뿐 아니라 **'연구성과 확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NEXT 프로젝트 **성과창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또한 각 분야의 성과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NEXT 얼라이언스 개요(예시)]

추진대회 주요 논의사항

이날 추진대회는 **배경훈 부총리 주재**로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전략, ▲전략기술 생태계 구축 방향, ▲정부의 역할 등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논의**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NEXT **국가전략기술**"이 최근의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3대 미션 중심**의 **전략성**이 **보강**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NEXT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강점과 한계**를 **고려**한 **명확한 방향 설정**과 함께 **민·관 원팀**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였다.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은 NEXT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업 주도 R&D**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및 **전략기술 인재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유홍림 서울대학교 총장**은 2030년 세계 최고, 2040년 세계 최초 기술 확보를 위해 **도전적 난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다. **오상록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NEXT 국가전략기술 개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구성될 **NEXT 얼라이언스**가 산·학·연·관의 **협력 사항**을 **발굴·실행**하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또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핵심 R&D 사업** 추진(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우주청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재권 분석**(지재처), **혁신조달**(조달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산·학·연 간의 유기적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며, "**산업**은 **기술과 시장의 현장 수요**를 **제시**하고, **대학**은 **인재양성, 글로벌 공동연구**를 이끌어야 하며, **연구기관**은 **도전적 연구개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NEXT 얼라이언스를 통해 **산·학·연의 역량**과 **R&D 사업, 금융·투자·정책 지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초·최고 기술**을 **확보**하도록 **끊임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투자**만으로 확보할 수 없고, **기업의 투자**와 **대학·연구기관·학계**의 **연구역량**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NEXT 프로젝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기술**에 **정부, 민간**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연구개발**부터 **성과창출 체계**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NEXT 프로젝트의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분야별 협의체와 프로젝트 지원팀으로 이루어진 **범부처·민간 원팀 'NEXT 얼라이언스'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NEXT 국가전략기술 R&D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범부처·민간이

함께 신속히 이행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성과를 관리할 예정으로, 추후 **국가전략기술 서밋** 등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붙임 1.「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 개최 개요
2.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예시)

총괄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기술육성과	책임자	과 장	신소영 (044-202-6750)
		담당자	사무관	신현중 (044-202-6756)
			사무관	채정민 (044-202-6758)
공동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과학기술혁신예산과	책임자	과 장	전보람 (044-214-2770)
		담당자	사무관	최동혁 (044-214-2774)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상민 (044-202-6820)
		담당자	사무관	정한솔 (044-202-6824)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디바이스AX혁신팀	책임자	팀 장	송창종 (044-202-6250)
		담당자	사무관	이주연 (044-202-6254)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4270)
		담당자	사무관	박현태 (044-203-4274)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 기후에너지신산업과	책임자	과 장	권현철 (044-203-3970)
		담당자	사무관	류진이 (044-203-3977)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대회」 개최 개요

□ 추진 필요성

○ **제8차 과기장관회의***('26. 4. 30.) **후속조치**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 및 성과창출을 위해 **범국가적 협력 방안 논의** 필요

*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방향(안)」 보고

-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주요 분야별 **성과창출 전략** 및 **민관 협업 방안** 공유 ⇨ **'NEXT 얼라이언스' 출범**으로 확대(~'26.下)

□ 개최 개요 : "NEXT One Korea - One Vision, One Team, One Future"

○ (일시/장소) **'26. 6. 18.(목) 14:00~15:40**(10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3층)

○ (참석) **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산·학·연 대표, 관계부처 차관 등

○ (내용)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주요 분야별 **육성 추진 방향** 및 민관 협업방안 발표

시간		주요 일정	비고
14:00 ~ 14:02	2'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4:02 ~ 14:15	13'	▸ 인사말씀	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및 산·학·연 대표
14:15 ~ 14:45	30	▸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추진 방향」 발표	관계부처 국장 -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후부
14:45 ~ 15:25	40'	▸ 관계부처, 민간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공유	미래대화 참여기관, 관계부처 등
15:25 ~ 15:35	10'	▸ 자유토론 및 협력방안 도출	참석자 전원
15:35 ~ 15:40	5'	▸ 마무리 및 폐회	부총리, 기획예산처 장관

□ 향후 추진계획(안)

○ 혁신 로드맵 최신화 및 "NEXT 얼라이언스" 운영('26. 下)

□ 주요 참석자

구 분		기 관	직위	성명
산업	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구자균
		대한상공회의소(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형희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	김유원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정연인
		삼성전자	사장	송재혁
		CJ제일제당	대표	윤석환
		LG사이언스파크	대표	정수헌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김기수
	금융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강승준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박주선
대학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
		포항공과대학교	총장	김성근
		한국과학기술원	부총장	김경수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오상록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류석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박세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윤지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직무대행	황지호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호현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우주항공청	청장	오태석
		조달청	차장	강성민

붙임 2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육성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예시)

① 반도체 분야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한 **글로벌 기술개발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HBM 등의 **초미세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메모리 분야**는 우리가 **선도하는 분야**이나 **미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중장기 R&D**가 **공백**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격차 산업 생태계 핵심인 **미세화 공정 한계**를 **극복**하고, 메모리 중심 컴퓨팅 반도체 원천기술개발을 NEXT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 **「반도체 특별법」**('26.8. 시행예정)을 **활용**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혁신 공통기반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전력 대비 성능**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② 에너지 분야

AI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운영**의 **복잡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전력망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AI를 활용**한 **지능형 전력망** 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 계통에 대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활용하여 **AI 기반 전력망 시스템 실증**에 나설 예정이며, 개발된 **AI 모델**을 통해 **민간**에서의 **서비스 상용화** 및 **시장 활성화**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크라켄*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력 수요**를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분산자원**을 **자동 제어**하는 **전력망**의 **지능화**를 구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달성하고자 한다.

* 영국의 에너지기업(옥토퍼스 에너지)의 운영 플랫폼인 '크라켄'에서 따온 말로 초대형 전력망 통합·제어 플랫폼을 의미함

③ 첨단로봇 분야

전 세계적인 생산인구 감소 속에서 인간 수준의 인지·행동이 가능한 **VLA(Vision-Language-Action) 기반의 피지컬 AI 범용로봇**이 시대적 해법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의 진입과 가치사슬 쟁탈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 하에서 피지컬 AI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정 도메인을 넘어 **보편적 행동·작업 능력을 갖춘 범용 파운데이션 모델 기술 주권**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범용지능모델**과 가상 환경에서의 학습을 지원하는 **월드모델**을 개발해 **피지컬 AI 핵심기술을 국산화**한다. 이와 함께 휴머노이드 개발·실증 및 양산 기반을 구축하고, **로봇 핵심부품**에 대한 R&D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범용 행동데이터 및 도메인별 핵심데이터를 확보·집적**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고도화해 **K-피지컬 AI의 전 분야 확산을 가속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피지컬 AI 1강**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